

2010. 26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10. 5. 10 발행인 : 최홍준





심는 순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5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9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12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협의회	12
>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12
> 한국가톨릭 여성연합회	13
>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13
> 무염시태 서울 세나투스	14
> 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15



알림

- ◎ 한국평협 2차 상임위원회는 11월 26일(금)부터 27일(토) 춘천교구 고성까리마스 피정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 ◎ 7월 9일부터 11일까지 꽃동네에서 개최되는 전국생명대회에 한국평협에서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 ◎ 한국평신도대회는 오는 6월 26일(토) 서울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열립니다.



현대의 아레오파고스

최흥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2010년 5월 11일은 전설적인 예수회원인 마테오 리치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400주년이 된다. 그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자면 ‘영일만’과 같은 이탈리아 안코나 지방에서 1552년에 태어나 1610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5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중국에 대한 그의 접근법은 끊임없이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지난 여섯 달 동안만 해도 타이베이와 파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각각 국제 학술회의가 열렸다.

타이완의 푸젠가톨릭대학교에서 4월 19일부터 4일간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90명이 넘는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참석한 300여 명은 철학과 역사, 종교, 문화, 과학,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동서양의 대화를 시도했으며, 교황청 문화평의회 사무총장 바티레미 아두코누 신부는, 리치 신부는 문화의 전달자가 아닌 복음의 전달자였지만, “그래도 리치 신부는 누구보다도 문화적인 인물이었다. 결국 훌륭한 선교사로서 그는 복음화와 문화 모두에서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리치 신부는 ‘문화간 대화의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가오슝대교구 은퇴 교구장인 산귀스 추기경은 400년 전에 이미 리치 신부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제안한 “상호존중, 상호이해, 상호협력”의 정신을 살려 종교간 대화를 활성화했다고 지적했다. 산귀스 추기경은 “리치 신부의 성공의 비밀”은 한편으로 중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또 한편으로 겸손하게 서양의 과학기술을 중국에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톨릭 선교사로서 새로운 선교법을 만든 것만이 아니라, 서구가 중국과 만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처음 제시했고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교황청은 이에 앞서 2009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 베드로 광장 브라치오 디 카를로 마노홀에서 ‘역사의 정점에서, 마테오 리치-로마와 베이징 사이’를 주제로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왜 그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수십만 명, 아니 적어도 수십 명을 세례 준 것으로 알려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모범을 쉽게 따르지 않았을까? 그는 하비에르가 선종한 해에 태어났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2009년 1월부터 아시아가톨릭뉴스(UCAN) 대표를 맡고 있는 예수회 마이클 켈리(Michael Kelly) 신부는 최근 UCAN칼럼(2010. 05. 10)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라고 물으면서 “리치 신부가 예수회 수련자 시절에 수련 담당이었던 알레산드로 발리냐노 (1539-1606)는 나중에 아시아 담당 장상이 됐는데, 리치를 비롯해 몇 명을 뽑아서 전혀 다른 아시아 선교를 추진하도록 했다”면서, “‘인도에는 인도식 가톨릭을, 일본에는 일본식 가톨릭을, 중국에는 중국식 가톨릭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교 선교사는 현지인의 마음과 심성 속으로, 언어와 문화, 상징과 감수성 속으로 여행을 해야만 했다.”고 켈리 신부는 덧붙이고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아테네에서 선교하면서 아레오파고스에서 힘차게 연설한 대목을 떠올리게 되었다. 사도행전 17장의 이 내용을 거론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37항에서 이렇게 언급한다. “아레오파고스는 아테네 식자들의 문화관이었고, 오늘의 복음 선포의 새로운 분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교황은 “현대의 첫째가는 아레오파고스는 홍보의 세계”라고 적고 있다. <뒷면에 계속>



그림은 마테오 리치 신부 초상 ▶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마테오 리치 신부와 ‘현대의 아레오파고스’를 놓고 볼 때, 이 땅 한국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인 과제를 안겨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마테오 리치 신부는 그 당시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로써 복음화하고자 했고, 무엇보다 문화의 토착화를 시도했으며, 우리 한국천주교회 창설기의 선각자들이 마테오 리치 신부가 한문으로 쓴 서화서, 예컨대 「천주실의」같은 책을 들여와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마침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 명동에서 우리는 “오늘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라는 주제로 아시아 평신도대회를 개최한다. 아시아, 그리고 이 땅 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선포할 것인가? 깊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한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8대 임원진과 상임단체

- 회 장 : 최홍준 파비아노 / 서울평협 회장
- 부회장 : 권경수 헬레나 / 서울대교구 평협 부회장
 - 김중해 비오 / 대구대교구 평단협 회장
 - 서정권 베드로 / 광주대교구 평협 회장
 - 박영석 토마스 아퀴나스 / 한국교수협의회 회장
 - 김태성 루치아노 / 한국 메리치 엔카운터 대표
 - 정해정 요셉 / 한국 빈첸시오 아바오르회 회장
 - 최정기 베드로 / 한국 언론인협의회 회장
- 감사 : 강신근 안드레아 / 마산평협 회장
 - 강상근 미카엘 / 전주평협 회장
- 사무총장 : 김길성 가롤로 / 서울평협 사무총장
- 사회사도직연구소장 : 오용석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 서울평협 연구소장
- 기획위원장 : 박철용 베드로 / 서울평협 단체위원장
- 선교위원장 : 김도선 베드로 / 수원평협 사무국장
- 교육위원장 : 김현규 라이문도 / 대전평협
- 문화위원장 : 조남진 모니카 / 서울평협 전 부회장
- 홍보위원장 : 이유식 유스티노 / 서울평협 홍보위원장
- 노년위원장 : 양두석 토마스 / 순교자현양회 부회장
- 가정위원장 : 김희숙 아네스 / 한국 메리치엔카운터 대표
- 사회적관심위원장 : 김어상 토마스 / 현 위원장
- 여성위원장 : 권경수 헬레나 / 한국가톨릭여성협의 회장
- 청소년위원장 : 김용휘 아우구스티노 / 서울평협 청년·청소년위원장
- 노동·생명·환경위원장 : 김용수 바오로 / 전 기획위원장
- 민족화해위원장 : 김성락 후고 / 서울평협 민화위원장
- 국제협력위원장 : 김홍래 라파엘 / 서울평협 국제협력위원장
- 한국평협 상임단체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마리아사업회(남, 여)
 - 중재자이신! 마리아 광주 세나투스
 - 무염시태 서울 세나투스
 - 레지오마리아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한국가톨릭경제인회
 - 한국가톨릭미술가협의회
 - 한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협의회
 - 한국가톨릭 의사협의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진석 추기경 주례로

제18대 임원진 출범미사 가져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4월 17일 오후 서울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의 주례로 제18대 임원진의 출범미사를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회칙에 따라 회장단과 감사에게는 교구장의 인준증이 수여됐고, 각 위원장과 자문위원, 상임단체들에는 최홍준 회장의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날 미사 강론을 통해 정 추기경은 “현재 5백만 신자의 한국교회를 일구는 데 평협의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셨다”며 “올해는 아시아 평신도대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해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G20을 개최하게 되는 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국제사회 내에서 교회와 사회적으로 발전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임원이 되신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열심히 임하시기 바란다”는 격려와 함께 “올해 지방선거에서 신자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덧붙였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최홍준 파비아노

▲부회장: 권경수 헬레나, 사공정숙 마리아, 이윤자 루치아, 이인석 유스티노, 조기연 마르티노, 한휘운 아녜스, 홍화순 마태오

▲감사: 권길중 바오로,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사무총장: 김길성 가롤로

▲사회사도직연구소장: 오용석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단체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베드로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이냐시오

▲선교위원회 위원장: 최동준 보나베틀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이사벨라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홍래 라파엘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유식 유스티노

▲문화위원회 위원장: 강석희 아녜스

▲노년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안토니오

▲가정위원회 위원장: 오현희 세실리아

▲청년·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용휘 아우구스티노

▲여성위원회 위원장: 이기연 루치아

▲사회적관심위원회 위원장: 유경중 요한보스코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성락 후고



성 최경환 가정교실로 성가정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점차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며 가정 내에서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음으로써 가정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작년 처음으로 실시한 ‘성 최경환 가정교실’ 아버지 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어머니 과정도 필요하다는 교육 후의 요청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아버지 과정을 지난 4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새로 시작하는 어머니 과정을 4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각각 6주간의 과





정으로 시작했다.

‘성 최경환 가정교실’은 최양업 신부님을 길러낸 모범적인 어버이로서 또 신앙공동체를 훌륭하게 이끈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성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신 최경환 성인의 모습을 묵상하며 본받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특히 가정 내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현대생활 속에서 소홀하기 쉬운 가족 간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숙달하게 하고, 가정 내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부부가 서로의 위가족 즉, 그들의 부모의 삶이 각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의 중요성과 각자의 역할과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강의, 동영상, 작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신도학교 공의회 과정 1학기 개강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매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자는 취지 아래 실시하고 있는 ‘공의회 과정’이 올해로 4번째 1학기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과정에도 100여 명의 수강생이 열렬한 학구열로 강의에 임해 교회와 사회 안에서 바르게 봉사하려는 열성을 볼 수 있었다.

‘공의회 과정’은 지난 2007년 “다시 공의회 문헌을 손에 들고 읽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2000년 대회년 강론 말씀에 따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16개 문헌을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신학교에서 강의하

는 각 분야 교수들을 강사로 모셔 지금까지 3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단체 소식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이주노동자위안잔치

서울가톨릭경제인회(회장 최철수, 담당 조학문 신부)는 지난 4월 4일 부활주일에 혜화동 동성고등학교에서 이주노동자위안잔치를 열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된 위안잔치는 이주노동자들을 초청하여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사였다.

오전 11시에 봉헌된 1부 부활미사는 염수정 총대리 주교와 조학문 담당사제, 노동사목위원회 허윤진 신부와 이주사목 담당사제단이 함께 집전했다. 미사를 주례한 염수정 주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언제나 이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미사에는 필리핀, 베트남, 남미, 캄보디아, 중국 그 외 다문화가정의 노동자와 내외빈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각 나라 언어로 독서와 기도, 성가를 부르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최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일의 행복을 담보하는 소망의 결실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쌀과 라면, 기타 생활필수품(비누, 치약, 칫솔)을 전달하였고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에는 현금과 물품을 지원했다.

2부 행사에서는 각 나라별로 준비한 음식을 참석자들이 서로 나누며, 우리은행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송금과 예금관련 상담을 해주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경제인회 회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년 동안 무료 진료와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료봉사단체 라파엘클리닉의 진료소를 방문하여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염수정 주교와 서울경제인회 회장단은 의료진과 봉사자,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을 찾아가 격려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와 여러 단체가 이번 행사를 위하여 다양한 후원을 해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천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후원했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천2백만 원 상당의 개인용 구급함 1,000개를 기증했다. 우리은행도 이주노동자에게 비누, 치약, 칫솔 등을 지원했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용관련 홍보자료를 보내주었다. 그 외 아셈투자자문주식회사와 경제인회 회원들은 협찬금을 찬조했다.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2010 사랑의 자선대바자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회장 권경수,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4월 11일 명동성당 별관에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사순시기에 대한 묵상을 하며 우리 주위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특히, 조손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성들, 학비를 조달할 수 없는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HIV나 AIDS환우들에게 넉넉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2010년 가톨릭여성연합회 사랑의 자선대바자를 개최했다. 품질이 우수하고 귀한 물품들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나눔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였다. 판매품목으로는 VIP기증품(추기경, 주교, 한국주재 외국대사 등), 식음료, 주류, 건강식품, 의류, 주얼리, 성물, 미술품, 잡화류, 약품, 환경제품, 각종 반찬류, 운동용품, 먹을거리와 기타 상품으로 아주 풍성하게 마련됐다.



4월 정기월례회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개최된 4월 정기월례회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여성연합회 및 기타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낙태근절과 태아생명수호'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의 최안나씨를 초청하여 "낙태는 여성의 비극, 사회의 절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에 특별히 모신 최안나씨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여성산부인과 의사로서 대정부적인 낙태근절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가톨릭여성연합회는 대한민국이 낙태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희망찬 첫 걸음인 생명수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태아도 엄연한 생명체로서 존중받는 사회 윤리가 회복되어 건강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40차 정기총회 및 연수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홍거, 담당 임기선 신부)는 '말씀을 증거하는 본당 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3월 6일(토)~7일(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제40차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개최했다.

58개 본당 6개 단체 149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2009년 결산보고 및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회칙 부분개정과 더불어 제21대 대전평협 회장단과 감사 선출이 있었다.

대전평협은 제21대 회장으로 김홍거 세례자 요한(탄방동)을 선출하고 감사는 김두남 요셉(전민동)과 조광래 프란치스코(온양)를 선출했다. 또 수석부회장에는 최용환 실베스테를 임명했다.



제21대 평협 상임위원 분과장 워크숍 개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김홍거 회장은 제21대 상임위원 분과장을 선임하고 3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문화산업진흥원 2층 회의실에서 평협 상임위원 분과장 워크숍을 실시했다.

임기선 요셉 담당사제와 사목기획국 양희창 차장신부, 사목기획국 서마리아 수녀와 함께한 이번 워크숍에서 21대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분과장들은 2010년 평협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평협의 중점사업인 '한생명운동'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과별 계획을 발표했다. 워크숍

후 친교와 화합을 위한 시간도 마련하여 21대 상임위원으로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생명평화미사 참여

대전평협 김홍거 회장은 4월 19일(월) 공주 고평에서 봉헌되었던 '금강생명평화미사'에 참석했다. 김홍거 회장은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주관했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대전교구 평협도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데 합류하기로 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춘계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연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이형수 몬시뇰)는 2010년 춘계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연수를 4월 18일(일) 마산교구청에서 67명이 참석하여 순교영성을 주제로 개최했다.

연수는 교구장 사목교서인 '순교영성으로 세상복음화'를 위한 특강과 묵상, 평신도사도직의 중요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구성하고, 제1부 평신도사도직에 대한 묵상과 오리엔테이션, 제2부 특강(순교영성과 복음화), 제3부 교구순교자 순례길과 순교영성 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토의와 평가의 시간으로 진행했다.

강신근 회장은 "교구의 본당회장과 교구단체장이 먼저 순교영성으로 쇄신되어 교구장 사목교서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비전1030복음화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주기를 당부했으며, 담당사제 이형수 총대리 몬시뇰은 "교구를 중심으로 본당과 교구단체가 일치



와 화합으로 교구순교자영성을 묵상하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의식"을 강조했다.

특강에서 김길수 교수는 "순교는 최고의 완덕이고 순교영성은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그리스도교의 절정으로서 교회안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비의 원천"으로서 모두가 묵상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제3부에서는 순교영성으로 복음화를 위한 사업의 토론회에서 '순교영성 심포지엄'을 9월 중에 개최하여 신석복(마르코) 순교자의 영성과 삶을 중심으로 명례공소를 조명하기로 했으며, 본당회장, 교구단체장의 교구 내 순교자묘소 순례길 묵상은 6월 12일(토)~13일(일) 1박2일에 걸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복음화작품공모전으로 '좋은 책 읽고 독후감 쓰기'를 전개하며 추천도서를 발표하고 평신도지도자가 솔선수범하기로 하여 '우리의 다짐'을 선포하고, 담당사제의 강복으로 춘계연수를 마쳤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단위 제 단체 회장단 연수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 박성열 신부)는 4월 24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구단위 제 단체 회장단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연수회를 가졌다. 올해 교구장 사목교서에 대한 실행지침인 "새로운 복음화의 해"란 주제로 사목국장 박성열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사도직, 신심운동, 직능별 단체별로 분임토의를 한 결과 각 단체의 다양한 카리스마를 인정하면서 정보공유와 각 단체의 행사에 서로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는 하나된 교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개최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3월 13일 개최된 제 1회 상임위원회에서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2010년 3월 12일 발표한 "생명문제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표명함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하고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에 광고, 홍보하기로 했다. 이에 함께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교우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생명평화 미사에 참석 등 모든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폐해와 부당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3월28일자 평화신문에 게재된 광고



지구 소식

각 지구별 본당 사목회 임원연수회 개최

2010년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새로운 복음화의 해”를 실행하기 위해 각 지구별로 본당 사목회 임원연수회를 개최하여 박성열 사목국장 신부와 각 지구장 신부의 특강, 분임토의를 통해 각 본당의 사례를 듣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동부지구 : 3월 6일, 봉선동성당, 150여 명 참석
- ▶광산지구 : 3월 14일, 쌍암동성당, 130여 명 참석
- ▶북부지구 : 3월 14일, 문흥동성당, 210여 명 참석
- ▶목포지구 : 3월 21일, 하당성당, 180여 명 참석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주년 추모음악회

목포지구평협(회장 김영찬, 담당 장세현 신부)은 3월 9일 대성동성당에서 목포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을 기억하는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단체 소식

제3회 전라남도 가톨릭공무원 피정

도청향주삼덕회(회장 이기환, 담당 김민수 신부) 산하, 진도군청 옥주삼덕회(회장 박종은)는 3월 13일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요한1,9)’를 주제로 전남지역 가톨릭 신자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정을 가졌다. 이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를 주제로 한 조원규(수원교구 성남대리구장) 신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이웃에 대한 참사랑과 봉사를 다짐했다. 최창무 대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신자 공무원들은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하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가톨릭 공무원 신자는 1300여 명으로 매년 전남지역 시·군을 순회하며 공무원 피정을 연다. 내년에는 장성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사회, 간호사회 피정

가톨릭의사회(회장 문덕진, 담당 박상선 신부)와 간호사회(회장 이숙자, 담당 박상선 신부)는 합동으로 3월 14일



명상의 집에서 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일일 피정을 가졌다. 이날 김영익(루도비꼬) 수사신부의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제로 1강의를, ‘우리들의 부르심-봉사와 나눔’ 주제로 2강의를 신부님의 열창과 함께 들으면서 일상에 매달렸던 마음들을 흠뻑 적서주는 시간이었다.

한편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임원들은 이번 소공동체 연수기간 내내 지원을 했다.



제5회 성인예비신자교리교사대회

성인예비신자교리교사회(회장 이만실, 담당 박성열 신부)는 본당에서 교리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 교리교사들이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다질 수 있도록 4월 10일 순천만 일대에서 교리교사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도직 활성화와 정보 교환을 위한 자리가 됐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주교구 평협 ‘가족과 함께 올레 걷기’ 실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 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 고병수 신부)는 4월 10일(토) 금년도 사업의 하나인 ‘가족과 함께 올레 걷기’를 평협 임원 및 도내,외 신자 1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레 2코스에서 실시했다.

교구장 사목지침인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소공동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오전 8시 40분 제주시 공설운동장을 출발, 성산포에 도착하여 10시에 성산포성당 (주임 이태수 신부)에서 미사를 봉헌한 후 올레를 걸으며 하느님이 만들어 내신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세계 자연유산이 있는 아름다운 제주에서 살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참가자들은 성산포 성당을 출발하여 오조리 - 식사봉 - 내수면 - 광치기 해안 - 섭지코지를 걸었다.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은이성지> 도보 성지순례

4월 10일, 새로운 임원진으로 구성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 중앙이사진의 도보 성지순례가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은이성지에서 있었다.

은이성지는 한국의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소년 시절을 보내고 사목활동을 한 곳으로 참석자들은 미사와 점심식사 후 간단한 몸풀기 운동을 하고 도보 성지순례를 시작했다.

굽이굽이 삼덕고개(신태, 망덕, 애덕고개)를 넘어 미리 내에 도착하니 오후 5시. 꼬박 4시간 동안 16Km를 걸었다. 양형권 신부(성지 담당)와 김화태 신부(평택대리교구장)가 미사부터 성지순례까지 함께 해 주어 더욱 많은 신앙적 지식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고개마다 서 있는 고개비 앞에서 신부님이 해주신 설명과 기도는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며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걷고 건너고 오르고 내리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협의회

총회 및 피정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협의회(회장 윤재송) 2010



년도 1/4분기 회장단 총회 및 피정이 3월 17일~18일(1박 2일) 한남동 쏠베푸알 피정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11개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들이 모여 2009년도 사업보고와 2010년 사업계획 및 피정, 파견미사로 진행됐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협의회 발전에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한국가톨릭 경제인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회장 최철수, 담당 조학문 신부)는 5월 1일(토) 오후 2시에 합정동 세계성체대회기념교육관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9개 교구 임원 50여 명이 참



석한 이번 총회는 협의회 결산과 감사보고에 이어 협의회 차원의 공동사업과 2회 한국청년대회 지원, 아시아평신도대회 지원, 예산심의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총회에서 전국 각 교구 경제인회는 제2회 한국청년대회를 지원할 것과 아시아평신도대회 기간 동안 한국교회를 알리는 안내와 봉사에 전 교구 임원이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이어진 임원선출에서 현 최철수 스테파노 회장이 피선되어 연임하게 되었고 감사에는 인천교구 박형래 마르코 회장과 의정부교구 이우복 로메로 회장이 선출됐다. 최철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종교인들의 모습을 자성하는 의미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사업의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강조하였다. 총회 후 참석자들은 절두산 순교성지를 순례하였고, 조학문 담당사제와 의정부 이문환 청소년국장 신부, (재)바보의 나눔 이동원 신부, 한국외방선교회 김광우, 김용재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서울가톨릭 경제인회는 한국외방선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학교에 지원금을 전달했고 한국외방선교회는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미사에서 조학문 담당사제는 “사람이 희망 없이는 단 2초도 살아갈 수 없다. 희망의 미래를 위해 서로 배려하고 하느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제인회를 만들어 갈 것”을 요청했다. 미사 후 참석자들은 만찬을 통하여 각 교구 경제인회 임원들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 여성연합회

전국이사회 개최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회장 권경수)는 지난 3월 19일(금)에 가톨릭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전국이사회를 가졌다. 수원, 대전 등 전국에서 총 22명의 각 교구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이사회에서는 한가협 사업의 현안과제와 발전전략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각 교구별 2009

년 사업보고 및 2010년 활동계획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4월에 있을 제36차 전국총회 강연자 선정 및 주제/프로그램 등을 확정하고 아울러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전국 생명대회에 대한 토의도 함께 진행됐다.

제36차 정기총회 및 28차 연수회 개최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청주교구 꽃동네 영성원에서 ‘생명, 사랑의 선물’을 주제로 제36차 정기총회 및 28차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청주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에서 주관하여 10개교구 여성연합회에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의 개회미사와 발제 강연에 이어 배티성지를 순례하고 꽃동네를 방문하여 오용진 신부의 특강을 들었다.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피정 및 제42차 정기총회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박장상)가 주최하고 수원교구 가톨릭의사회가 주관하는 피정 및 제42차 정기총회가 “첫마음의 향기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2010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안양 성라자로 마을아론의 집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9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4시부터 아론의 집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예절이 거행 됐으며 수원교구 가톨릭의사회 손승협 회장과 회원가족들의 정성어린 준비와 성대한 환영식이 있었다.

오후 5시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집전으로 개회 미사가 시작됐으며, 한국가톨릭의사협회 담당 아동의 신부와 수원교구 가톨릭의사회 담당 최석열 신부가 함께 했다.

이용훈 주교는 강론에서 “예수님께서 각계각층의 병자들(나병, 중풍, 앓은뱅이, 마귀에 걸린 환자)을 고쳐 주신 것과 같이, 병들고 고통 받고 신음하는 환우들을 고쳐주는 것은 의사들의 사명이며 목숨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는 가톨릭의사가 되어야 한다”며 의사들도 성직자 역할의 일부분이란



것을 명심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옳지 못한 일에 침묵하지 말고, 인간생명 존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녁식사 후 7시부터 이번 피정의 주제인 ‘첫 마음의 향기’에 대해 성 빈센트병원 임상사목센터 정무근 신부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의사가 된 후 처음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의 본분과 의무, 책무, 윤리관을 선서하는 내용이지만 세파에 시달려 살다보면 퇴색되어 버리는 마음을 다시 첫 마음의 향기로 되돌아가자는 내용이었다.

저녁 8시 30분부터 개별 고백성사 후, 9시 30분부터는 수원교구 가톨릭의사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다과 등을 맛있게 먹으면서 각 교구의 지난 해 활동을 보고하고, 교구별 장기 자랑, 노래 자랑 등이 흥겹게 진행됐다.

담당 이동익 신부는 한국가톨릭의사회회는 다른 신심 단체보다 그 의미가 크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본 협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격려했다.

둘째 날 아침 성라자로 마을 야외 산에 마련된 십자가의 길 예절을 하며 양지바른 곳에 마련된 예수님의 수난처(14처)에서 회원,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1처 1처 지날 때 마다 마음속에 되새겼다.

두 번째 강의는 “영성 이해와 영성 안에서 의학적인 입장”에 대하여 영통성령성당 정영식(바오로) 신부가 진행하였다.

이어 이동익 지도신부의 집전으로 파견미사가 봉헌됐으며, 가톨릭의사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한 강론 말씀이 있었고, 1박 2일의 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이어진 제42차 정기총회에서는 업무보고, 재무보고, 기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이동익 지도신부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배가 운동과 자발적인 참여와 가톨릭의료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대구교구의 김중강 고문은 교구별 연회비가 5년 전에 책정된 것이니 교구분담금을 증액시키자고 건의하였고 그외 오는 5월 7일에서 9일, 프랑스 루르드에서 개최되는 세계가톨릭의사회 총회 참석과 성지순례에 대한 안

내가 있었으며, 2011년 제43차 한국가톨릭의사회 협회 피정 및 총회는 서울교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했다. 임원 개편에서는 회장단은 재임이 되었고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장인 고영초 교수(건국대병원 뇌신경센터 소장)와 이진창(이진창 내과) 원장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무염시대 서울 세나투스

초임 꾸리아 단장 교육

울 무염시대 세나투스(단장 한휘운,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2010년 3월 24일~25일 1박 2일로 초임 꾸리아 단장 70명을 대상으로 의왕시 소재 ‘아룬의 집’에서 꾸리아 단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첫 날에는 하재별 신부가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으며 둘째 날 오전에는 민병덕 신부가 ‘꾸리아 단장과 사제와의 관계’에 대하여, 오후에는 팽종섭 전 세나투스 단장이 ‘꾸리아 단장의 역할’에 대하여 강의를 했다.

파견 미사의 강론에서 민병덕 비오 신부는 꾸리아는 레지오 단체의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평의회인 만큼 초임 단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잘 수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10년 서울무염시대 세나투스 레지오관리회 Cw.초임단장 교육 2010.3.24-3.25



한국 메리시 엔카운터

중국 북경3차 ME주말 실시

전국 양성팀 워크숍 실시



한국 메리시 엔카운터(대표팀: 김태성+김희숙 부부, 최준웅 신부)는 지난 4월 10일에서 11일 까지 1박 2일간 베네딕토 피정의 집에서 전국 각 교구 ME 양성대표팀들의 워크숍을 실시했다.

한국ME 대표팀의 프로그램발표와 개편된 다리과정에 대한 연구소장의 경과보고, 연구소 위원들의 각 과정 발표와 다리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 메리시 엔카운터는 중국 북경 ME 3차 주말을 4월 30일부터 5월2일까지 북경신학교에서 실시했다.

김문상 신부, 정윤영+조민형 부부, 봉정수+김경숙 부부, 최경호+조경신 부부가 발표에 임하고 7쌍의 부부, 그리고 한 분의 사제가 ME주말을 체험했다.

세계 가톨릭신자 11억66만명

교황청「교회 연감 2000-2008」, 2000년 이후 11.54% 늘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전세계 가톨릭 인구가 1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황청이 4월 27일에 발표한 「교회 연감 2000-2008」 개정판에 따르면, 전세계 신자 수는 2000년 10억4500만 명에서 2008년 11억 6600만 명으로 1억2100만 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가장 높은 33%의 증가세를 보였고, 다음이 아시아로 15.61%가 증가했다.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가 각각 11.39%와 10.93%가 증가했고, 유럽은 1.17%로 증가세가 미미했다.

전 세계 주교 수는 2000년 4541명에서 2008년 5002명으로 10.15%가 증가했고, 사제 수도 또한 같은 기간에 40만 5178명에서 40만9166명으로 0.98%가 증가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각각 33.1%와 23.8%가 증가한 반면, 유럽과 오세아니아는 각각 7%와 4%가 감소했다. 교구 사제는 2000년 26만5781명에서 2008년 27만4007명으로 3.1%가 증가한 반면, 수도회 사제는 오히려 3.04%가 줄어 2008년에는 13만5159명이었다.

수사 역시 2000년 5만5057명에서 2008년에는 5만4641명으로 줄었다. 오세아니아와 유럽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각각 32%와 10.47%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녀는 2000년 80만 명에서 2008년 74만 명으로 줄었다. 대륙별 분포는 유럽이 41%로 가장 높았고, 아메리카가 27.47%, 아시아 21.77%였고, 오세아니아 1.28%였다.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한홍순)는 기획부, 전례부, 진행부, 홍보부, 시설부, 기록부, 봉사부, 의전부, 통역부와 사무국 등으로 조직을 갖추어 현재까지 교황청에 1차 접수된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이번 대회에서 한국사회와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통해 아시아교회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

4월 말 현재 아시아주교연합 회원국과 준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10개국 대표 51명, 세계 운동·단체 가운데에서는 27개 단체 75명이 참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한국은 현재 교구대표 24명, 교구평협 13명, 운동·단체 10명,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8명,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에서 수도자 4명, 준비위원 33명(사제 9명 포함), 총 92명이 참가 결정된 상태며, 빠른 시일 내 참석자를 확정해 구체적 일정별 준비에 들어간다.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 기도문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아의 거룩한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나이다.

주님, 구하오니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를 강복하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시며
저희 안에 성령강림의 특은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복음 때문에 박해 받는 이를 지켜 주시고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를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순교자들과 증거자들의 여왕이시며
복음화의 찬란한 별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하나이다.
아멘.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